

연중 제29주일

기도서 P. 462 C해  
 제1독서(출애 17, 8-13)  
 제2독서(디모후 3, 14-4, 2)  
 복음(루카 18, 1-8)

#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강론



## 미치지(狂) 않으면 미치지(及) 못한다.

### 한 기 호 신부

—오늘 복음에서는, 하느님께서 끈질기게 청하는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주고 있다. 무력하고 별볼일 없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 법관에게 호소했다. 금력과 권력으로 기울어져 있는 법관은 그녀가 보잘것 없는 자에 불과했기에, 그녀의 청을 묵살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과부는 그 법관이 불의하고 의로운 판단을 내리지 않는 자임을 뻔히 알면서도 끈질기게 졸라댔다. 「저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마침내 법관은 끈질긴 청으로 못견디게 구는 그녀의 청을 귀찮은 나머지 들어주고 말았다.

—여기서 예수님은 교훈을 이끌어 내셨다. 온 세상의 재판관이신 하느님께서 금력과 권력으로 기울어져 있는 인간 재판관과 같은 것인가? 사랑자체이신 하느님께서 항구한 믿음으로 간절히 청하고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거절하시겠는가?

—그러나 절박한 도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때론 우리의 기도가 허락받지 못한 것 같은 실망과 불안을 느끼며 초조해질 때가 있다. 간절히 청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훨씬 높으시다는 것과, 하느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곧 들어 주신 것이다.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이사야 55:9)

—오늘 복음의 핵심은 열심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꼭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뜻이지, 마치 하느님이 마음씨 나쁜 재판관처럼 무력대고 졸라대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도 고약한 재판관도 성가시게 졸라대는 과부의 청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사랑이 시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야 얼마나 우리의 청을 잘 들어주시겠는가!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복음서 여러 곳에서 되풀이해서 말씀하셨다. (마태 21:22, 마르 11:24)

—기도해서 변하는 것은 하느님의 계획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인간이다. 예를들어 배를 탄 사람이, 어떤 설에 밧줄을 걸어 놓고 그 줄을 잡아당겨 섬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길 때, 섬이 이쪽으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배가 섬으로 끌려가듯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뜻이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뜻과 합일(合一)되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자.

(대야 천주교회 주임신부)



## 스위치를 끌 수 있는 선택의 자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 차를 타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택시에도 음악감상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어 놓았는가 하면, 라디오 하나로 끝나기도 한다. 음악의 내용도 갖가지다. 아침부터 청송맞은 유행음악을 들려주는가 하면, 조금은 밝고 진전한 음악 테이프를 걸어놓은 기사도 있다. 심지어는 낡은 시내버스에 일일 연속극을 틀어놓아 몸과 정신을 피곤하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사람은 취향이 자기 다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음식점엘 가면, 먹고 싶은 음식을 청해도 '그건 안되니까 이걸 먹으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손님은 왕이라는데도 말이다. 혹시라도 자기의 주관을 살려 자리를 털고 일어서면 욕설을 퍼붓기까지 하는 사람까지도 있다. 왜 이렇게까지 되있는가? 남의 뜻을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존경받을 수 없음을 진리이다.

음악감상을 할 수 있게 시설된 비행기가 있다. 고전음악, 경음악, 대중음악이 준비되어 있다. 취향에 따라서 음악을 듣고 싶으면 귀에 꽂는 수신기를 사서, 듣고 싶은 음악에 다이얼을 맞추어 들으면 된다. 물론 듣기가 싫으면 안들으면 되는 것이다. 얼마나 선택의 기회가 철저하게 주어져 있는가 말이다.

복한 공산집단지원 라디오의 다이얼이 고정되어 일방적인 방송만 쏟아져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듣고 싶은 방송이 없을 때는 듣지 않는 선택(不參)부터 시작해서, 듣고싶은 방송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선택(參與)까지가 우리의 자유요 권리이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는 바로 이것. —일방통행이나 선택의 자유나—이다.

## 숲 정이 산책



「10월은 로사리오의 달」





# 생산비는 보장되어야 한다

오래 전부터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식량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고, 급변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의 흉작은 식량부족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식량문제도 지난 60년에는 거의 자급자족할 정도여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농업을 외면한 개발정책으로 작년말에 급기야 59.7%의 자급율에 불과하여 1년중 5개월정도는 외국의 것을 사오지 않으면 안되어야 하는 중대한 지경에 도달하였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은 수출제일주의에 입각하여 해외시장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업화에 외채 의존도가 높았고 외채상환을 위해서는 수출제일주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을 중시하게 되고 국내시장을 등한시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김병태 한국농업의 발전이론 P. 920) 따라서 국내 구매력을 증진시킬 농가소득의 증대라는 것은 당장에는 급하지 않았으며 농가의 소득은 낮더라도 식량과 원료를 값싸게 생산해 주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주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국자들은 쌀값의 값싼 국제시세, 물가안정, 양곡적자, 농수산부추정 생산비 등을 구실로 쌀값을 생산비에도 미달하는 쌀 값으로 결정하여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저하시켰으며 우리나라를 다량의 식량수입국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또한 소비자들까지도 쌀값이 오르면 도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구시대적인 단순한 생각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해 왔다.

그러나 쌀값이 오르면 도시 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는 농민이 잘 살면 도시 소비자들도 못살게 된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곧 농민이나 도시 근로자층 어느 한 쪽이 못살아야 한 쪽이 잘 살 수 있다는 극한적으론 대립되는 모순된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공산품의 해외 경쟁력을 의식한 수출제일주의 개발정책의 산물인 저노임의 결과이지 쌀값이 비싸서서 결코 아닌 것이다.

따라서 농민에게는 생산비가 보장되고, 근로자에게는 일한 만큼의 정당한 노임이 지불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며 그래야만 농민도 살고, 근로자도 살고 더불어 온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을 외면한 저농산물가격, 저노임정책을 자바로 하는 경제개발은 일부 상류층만 살찌우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킬 뿐이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결코 아닌 것이다.

물론 그동안 농민들의 생활이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사실 조금 나아진 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향상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지만) 농민들의 재산의 증가가 농토의 확대에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1945년에 1천5백평 미만 농가 33.9%는 1974년에 이르러서도 33.0%에 머물고 있으며, 1천5백평 이상 3천평미만 농가는 1945년에 34.4%이던 것이 1974년에 34.0%, 3천평이상 6천평미만 농가는 1945년에 21.4%이던 것이 1974년에는 26.5%로 약간의 증가를 가져왔는가 하면 6천평이상 9천평미만 농가는 1945년에 6.0%에서 1974년에는 5.0%로 오히려 감소되고 있어 농민들의 농업을 통한 재산의 증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활수준을 가리키는 지표로서의 엔겔계수를 보더라도 74~75년의 농촌 각 계층의 엔겔계수는 66년~67년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6천평이상의 농가를 제외한 전 농가는 계속하여 하류층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김병태 한국농업의 발전이론 P. 26)

이상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민들의 재산이나 생활수준은 크게 향상됨이 없이 담보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농가소득중 가족노동력의 대가, 자기 토지의 이자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의 60%를 차지하는 쌀값이 얼마나 값싼가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이에 가톨릭 농민회에서는 지난 75년부터 6년째 생산비를 조사해 오고 있으며 서명운동, 생산자대회 등을 통하여 생산비 보장을 촉구해 오고 있으나 적자폭은 갈수록 더 커지지만해 75년에 쌀 80kg 1가마당 720원의 적자를 보았던 것이 작년에는 무려 1만8천3백원의 적자를 보게 되어 이를 충수대량 1천단식으로 환산하면 무려 1천 8백3십억원의 손해를 농민들이 보았던 것이다.

올해의 이상장마, 이상저온으로 식량의 자급문제가 상당히 중대한 과제로 부각된 현시점에서 쌀값의 국제시세가 싸다고 해서 외국에서 사다 먹을 수만은 없는 것이며 우리가 먹는 식량은 우리가 생산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때 농민들에게 충분한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것만이 증산의 지름길이요(실질미가가 10% 등귀할 때 생산이 약 3% 증가한다는 농협중앙회나 USAID의 통계가 있음), 식량의 부족 현실을 타개하는 길이며, 미래의 자원부족시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임을 지적해 둔다.

(한국 가톨릭 농민회 전북연합회 제공)

## 학원생 모집

중장비 종합반(도자·포크렌·지게차·페코라)  
자동차 운전(자가용·영업용·대형반)

매월 1일, 15일 개강 수시 접수. 대형코스 장거리 연습장 완비. 중장비반은 운전실기 연습으로 운전면허 취득, 자체장비로 수시로 접수

### 전주 새한 중장비 자동차 운전학원

완주군 상관면 대성리 34-24 주 이연우(요한)  
전화 전주 ② 0073. (자) ③ 0591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거복표·오리표·청자표 기타 씽크 총판

## 중앙 종합 주방

가스렌지·가스기구·판매 일체

중앙성당 경문 옆 ④ 0841 공장 ⑤ 5621

김 정 기(안드레아)  
박 윤 규(안당) 근배



<성당 · 성지 순례기>

## 東獨에서 본 동독聖堂 (1)

부주교 김 스테파노

지난 7월 23일이었다. 국제 푸른군단 본부의 초청을 받아 독일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좋은 날씨에 이수현 신부님이 공항에 나오셨기에 무척 고마웠다. 마칩 방학중이라서 불란서에서 공부하시는 이병호 신부님과 로마에서 범선배, 김기수 신부님이 이곳에 오셨기에 우리 모두는 라인강변의 로제라이 언덕위에 앉아 4개국 대표들이 마치고 국제모임인양 고향소식을 정답게 나누었다.

나는 독일 체류중에 베르린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동독을 거쳐 베르린을 갈 수 있는 길은 비행기로, 기차로, 고속버스로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지방도로를 통하여 가기로 했다. 나는 동과 서의 분계선상에서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우리 승용차가 삼엄한 국경선을 넘어서자 나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엄청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로 표시판 하나 없는 허술한 길, 퇴색한 건물, 특히 버려진 농장을 보았을 때는 농장이 부족한 우리나라 생각에 은근히 욕심스런 마음이 들었다. 간판하나 볼 수 없는 길 거리, 여기에 상점이 있을리 만무하다. 나는 사진 필름이 떨어져 동독에서 살려던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던지를 현지에 가서야 알게 되었다. 또 하나의 두드러진 점은 우리가 타고간 신행 벤츠차에 비하여 동독 승용차는 우리나라 20년전 새나라차와 조금도 다를바가 없을 뿐더러 한 사람도 예외없이 안전벨트를 맨 모습들이 그렇게도 공산치하의 절대적 속박감을 감출길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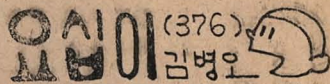
나는 무엇보다 제일 주의 깊게 살펴 본 것은 역시 성당의 모습들이었다. 깨어진 유리창, 우중충한 붉은 벽돌, 아마도 2차대전 이후 그냥 내버려진 모습이라 생각되었다. 어느만큼 가노라니 성당에 커튼이 쳐있었다. 성체조배를 드리려는 속셈으로 차를 멈추어 보니 출입구에 먼사무소라 쓰여져있다고 같이 간 교포가 말한다. 서베르린에 도착하니 신부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그 신부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교좌성당은 동베르린에 있고, 주교님도 그쪽에 계시면서 서베르린까지 관장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다.

일찍이 들어 아는 이야기지만 모스크바 크레믈린궁전 지하실에도 성당이 있어 여행하는 성직자들이 가면 미사를 지낼수 있다더니 공산세계에서도 신앙의 자유라는 말마디가 몹시 켈리는 모양이다.

우리 일행은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선상에서 120km로 신나게 달리다가 동독 순찰에게 걸려 60마르크(20,000원)를 빼앗겼다. 서독에서는 140km를 달렸어도 딱지를 메지 않았는데.....

### 제9차 푸르실료 전국 울뜨레아에 5천여명 참가

지난 10월 9일 대전 충무 체육관에서 있었던 전국 울뜨레아에는 전주교구에서 230여명(사제 15명, 수도자 10명 포함)이 참가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5천여 푸르실리스타가 모여 우정을 다지고 사명을 재다짐 했다.



이 작품은 색도 아름답고 모양과 명암도 좋고



누구나 즐길수 있는 훌륭한 작품이요



잘못된 점을 말하면 너 좋지 못해!!



참 이상한 감상방범이구나



사진재료 및 기계  
칼라필름 도산매

**유 광 사**  
주 유 가애파노(영문)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후문옆)  
전화 ㉠ 4448 · ㉡ 2176

□신장 개업 신내

금 · 은 · 보석 · 시계

### 금 보 장

(전 ·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옆(대지여관 입구)

전화 ㉠4989(사구판구) ㉡4988

맛의 전당

### 로 타 리 시 식 코 너

(풍년제과 맞은편)

한식 · 겸양식 · 분식 · 중화식 ·

튀김 · 주류

단체손님환영, 피로연, 회갑연,

야외도시락 환영 전화 ㉠ 6710

대표 이 승 준(방지거)

### 전주 토용 개점

토용(土龍)은 약이 아니라 고영양 식품입니다.

그 복용자들로부터 그 효과가 신비의 영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래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알리고 권하고자 전주에도 분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관 성 베네딕도 수도원 최로렌조 수사님께서 개발하여 연구실험한 결과입니다.

적응증: 모든 간질환, 부인병, 저혈압, 폐결핵, 원기쇠약, 각종 난치병

전주 성모병원 3층(322호)

전화 ㉠ 2301

유석중(스테파노) 오예환(바오로)

<수시 접수> 매월 1일 개강!

### 주 산 · 부 기 · 타 자

- 넓고 시원한 강의실
- 원장 선생 직접 지도
- 유치반(6세) 개설

김제읍 요촌리 156-15  
(고속버스터미널 옆)

관인제일경리학원

원장 김유근(요한) ㉠ 2953

### ◎담고약L · 우진파스

주효능 · 신경통 · 근육통  
전통 · 운동전후

### ◎부이리진

주효능 · 식욕촉진 · 발육촉진  
영양장애

우진제약(주) 전북사무소

소장 이흥우(비오) 군산 ㉠5786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추계 사제 총회...10월 21일<화> 오전 10시, 가톨릭 센터에서
2. 제 4 지구 학생 회장단 회의...10월 26일<일> 오후 1시, 중앙성당 사제관 3층  
※ 학생 회장님들은 꼭 참석 바랍니다
3. 81년도 천주교 신자 수첩에 수록될 광고 접수  
81년도 천주교 신자 수첩이 전국 평협에 의해 제작되는 바, 수첩에 광고를 넣어 현재 경영하고 있는 업소를 소개하고 싶은 형제 자매들은 10월 23일까지 숲정이 편집실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4. 혼인강좌...20일<월>~25일<토> 일주일간 오후 8시, 장소-전등 천주교회  
강좌내용 : 월-교리상의 혼인, 화-의학상의 혼인, 수-행복한 가정운동 소개  
              목-민심상의 혼인, 금-교회상의 혼인, 토-행복한 가정의 실례

(중앙)

전화 ③3651 2374  
주임 신부 문정원  
보좌 신부 박기성  
사도 회장 김병규

1. 성모회: 공식미사 후
  2. 청년성가대 피정: 18일~19일, 고산 천호
  3. 주일학교 4 지구 체육대회: 19일, 해성학교
  4. 중·고 추계 야유회: 학생미사 후
  5. 사마리아인회 산정 나환자촌 방문: 23일
  6. 본당 청년 심심단체 체육대회: 26일, 해성학교
  7. 병자방문: 21일<화> ~~오전 10시~~ 오후 2시
  8. 가정방문 시작
  9. 특별강연: 22일<수> 오후 8시, 가난한 자들의 권리
  10. 본당살림이 어렵습니다. 교무금을 납부합니다
  11. 본당 도서함이 비었습니다. 빌려간 책 반납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421,386원

(서화동)

전화 ②27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함형수

1. 축! 천사의 모후 pr 탄생 : 축하합니다  
첫 회합-21일 저녁 8시  
단장-유마리아, 부단장-강갈다
  2. 할머니회: 공식미사 후
  3. 안셀모회: 다음주일 오후 3시, 회의실
  4. 사도회 임원중심 pr 실시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관심을 갖읍시다
  5. 새 사무장님 : 이재구(모이세) 수고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박종갑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병자방문 : 24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7.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김낙균·박병환, 신자들의 기도-김한기
- 지난주 봉헌금: 141,471원 교무금: 72,000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충근  
사도 회장 박춘근

1. 제10차 성령세미나 : 내일부터~25일까지  
매일 오후 2시~4시까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수녀님들을 위한 성서특강 : 매주<월> 오후 2시~4시
  3. 성령기도회 :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세미나를 받으신 분은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4. 성서강의 : 매주<월·화> 오후 8시~9시까지
  5. 인후아파트지역 특전미사 : 매주<토> 오후 8시  
삼흥복육탕 2층에서,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6. 금주의 성서읽기 : 구약의 (에레미아)서 전체
  7. 어린이 도서 모집 : 공소의 어린이들을 위해 각종 어린이 도서를 기증해 주실 분은 보좌신부님과 상담하십시오
- 지난주 봉헌금: 204,225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호

1. 10월 19일은 전교주일 : 특별헌금 있습니다  
전교회비를 이날 끝주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2. 성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요안나회 월례회 : 26일 공식미사 후
  4. 성가연습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와 주일 공식미사 후
  5. 4지구 주일학교 체육대회 : 9시부터 해성학교 교정에서 있어오니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76,480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정오  
사도 회장 양상열

1. 미사시간 안내 : 주일-오전 6시, 오전 9시(중고생) 10시, 오후 3시(어린이), 오후 7시30분
  2. 주일학교에 어린이 많이 보내주세요.  
일요일 2시-교리
  3.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신자 배가운동에 앞장서 예비자 인도바랍니다
  4. 오늘은 애령주일입니다  
먼저 가진 선영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5. 각 단체의 활동에 모든 교우님을 협조가 아쉽습니다
  6. 성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7. 진복회·부녀회 : 다음주
- 지난주 봉헌금: 244,480원

(전등)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기중  
보좌 신부 김유석  
사도 회장 유석중

1. 피미시움 : 오후 2시
  2. 성화회 소풍 : 26일, 장소-쌍계사  
전원 참석 바랍니다
  3. 혼인 강좌 : 20일~25일 오후 8시  
장소-주일학교 교리실, 젊은분들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4지구 주일학교 체육대회 : 오늘 9시부터 해성학교에서,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5. 금주 전례담당 (19일)  
아침미사 : 사회-양현중, 독서-① 최병래 ② 이신희  
공식미사 : 사회-서정옥, 독서-① 이덕수 ② 박도식  
저녁미사 : 사회-경양수, 독서-① 이승호 ② 변해식
- 지난주 봉헌금: 381,16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범영배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오늘은 전교주일 : 특별헌금 있습니다  
전교회비 : 보통-500원, 특별-2,000원,  
어린이-100원
  3. 예비자 교리 : 매주일 공식미사 후-히레레사씨 지도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범신부님 지도  
예비자들을 정성껏 안내합니다
  4. 미사시간 엄수 : 10분전에 와서 준비합니다
  5. 성지순례 : 11월 12일<수>, 경기도 광주 천진암  
회비-5000원, 주관-복자부녀회
- 지난주 봉헌금: 306,69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가정방문 : 22~23일-우진·배아
  2. 부녀회 월례회 : 다음주일 10시미사 후
  3. 16일 확인지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4. 유아세례 : 다음주 3시미사 후
  5. 하느님께 감사예물(교무금)을 바칩시다
  6. 수녀원 신축금 십의구  
조형숙(10만원), 최남수(5만원), 이정선(3만원),  
김성실(2만원), 김순여(1만원),  
김광열(시멘트 5포)
- 지난주 봉헌금: 90,900원 어린이헌금: 2,070원  
교무금: 59,000원